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삼일절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자

에 나섰다. 관내 13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각 통장이 국기 게양을 홍보하고 국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국기를 갖추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국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 통·반별로 100% 국기 게양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해마다 국경일 국기게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삼일절 국기게양 홍보를 구청처럼 하고 있어, 국기 갖추기와 국기 게양추진에 있어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돋보이고 있다. 관내 금융기관인 서석새마을금고(이사장 정병호)는 가정용 국기 400개를 동구청에 회사해 국기가 없는 가정에 보급하도록 해 이번 삼일절 국기게양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가정용 국기 100개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삼일절 국기게양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의 다민족이 모여 이루어진 국민이며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가정마다 빠짐없이 게양하고 있다. 미국은 다민족 50개 주가 모여 이루어진 합중국이지만, 성조기인 국기 앞에서는 애국심을 다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학교에서 교육했고 지자체에서도 그때마다 홍보하지만, 지난해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이렇고도 민주주의의 국가인가를 부끄러움이 들

게 했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경일에 누구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게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으며 각 아파트에는 관리 사무소가 있고 시골 마을에 마을 안내 방송이 있듯이 아파트마다 관리 사무소에서 집집이 연락되는 방송망이 있으며 아파트군집의 인구는 시골의 면 또는 군 인구만큼 많은 아파트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화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치와 자율을 자랑하고 있다. 국경일에 100% 국기게양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주민자치를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아파트에 100% 게양된 태극기 물결은 우리의 자랑이며 민주주의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선진국 주민자치 자랑이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 국기게양을 통해 아파트마다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자체에서 하는 데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으며 경제적 생활 수준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국경일이 공휴일인데 어찌서 공휴일인 가의 국경일 공휴일에 대한 사전교육과 국경일 국기 게양 홍보 교육이 있어야 하며 삼일절 당일에는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자녀와 같이

게양해야 한다.

3·1운동은 일제 강점 시대에 가장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모든 계층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전국적이었다. 또한, 조선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달게 받는다고 한 일제의 선전이 허위였음을 일시에 폭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3·1운동은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져 항일독립운동을 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침략자이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억압했던 만행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지금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침략 만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삼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억압을 받았고 후진 국가였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노력과 애국심은 일본에 앞서 세계 6위의 강대국 선진국이 됐다. (미국-중국-러시아-독일-프랑스-한국) 우리는 민주국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국경일인 삼일절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며 1등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부르자.

올해 104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의 3·1운동 정신을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의 국가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3·1절 국경일을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1일은 3·1절 104주년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며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국기게양을 하게 돼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자랑스러운 국경일에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며 지난 역사를 음미하고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광주광역시 중구 구정동 동구청(구청장 임택)은 삼일절을 앞두고 전 구민의 국기게양 홍보

독자기고

친환경 전기차, 지켜야할 충전시설 화재예방 수칙

문병운
고흥소방서장

세상은 발전하고, 지구는 아파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돼 향후 지구 상승 온도를 2도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세계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그에 맞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모두 심여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됐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국에서 59건이다. 전기차 화재는 폭발적으로 불이 붙고 쉽게 꺼지지 않아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다.

그 중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

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20배 이상(국토교통위원회 자료)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비를 위한 뾰족한 방안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완속충전보다 잦은 급속충전은 화재위험이 높다. 전기차 충전 시 배터리에 열량이 덜 가도록 완속충전을 이용하며, 전원 차단 시 강제차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 둘째, 차량 충전시 물기에 주의해야 한다. 충전 케이블과 충전 소켓 부위 내 물기가 존재하면 사용을 금하고 반드시 건조 후 사용한다. 셋째, 운전자는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소방서 신고하며, 이때 '전기차 화재'라고 화재 성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전기차 화재는 화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배터리 내부 분리막 손상에 의한 열폭주로 질식효과 및 냉각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화세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처방안과 안전관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전광선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저주담양군연합사업단